

# 김장철 타지역 배추 '해남産' 둔갑 성행

###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위반 11명 입건 “소비자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 강화할 것”

김장철을 맞아 타지역 배추를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해남 배추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명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타 지역산 배추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해남배추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명을 입건

해 수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중 7명은 해남군 인접지역인 무안, 진도, 신안 등에서 생산된 배추를 '땅끝해남배추', '해남군'으로 인쇄 표시된 그물망에 포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은 해남에서 생산된 배추가 아닌 타지역산 배추로 만든 절임

배추의 원산지를 '해남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해남군 소재 A유통업체는 경북 영양군 등에서 생산한 배추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절임배추로 만든 뒤 원산지를 '해남군'으로 표시해 58t을 택배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목포에 거주하는 유통업자는 무안군에서 생산한 배추를 해남군 소재의 한 영농조합법원에서 절임 배추로 만든 후 원산지를 '해남군'으로 인쇄해 광주지역 마트에

18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황성에 거주하는 유통업자 B씨는 무안산 배추 7t을 '땅끝해남배추'라고 인쇄된 그물망에 포장 작업 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다가 적발됐다. 박중신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서명환 기자



“친구야 학교가자” 세종시 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26일 세종시 연양초등학교에서 입학 앞둔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재 곁고 있다.

### “올해 제야의 종은 인기 캐릭터 ‘펭수’가” 오는 31일 보신각 타종행사

올해 마지막 날, 인기 캐릭터 ‘펭수’가 보신각 종을 치며 새해를 알린다. 서울시는 31일 자정 보신각에서 ‘2019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EBS ‘지이언트 펭TV’의 크리에이터 펭수, 이춘재·고유정 등 강력범죄 수사에 참여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한국전쟁 참전용사 강영구씨, 5·18기념계승사업에 앞장선 이철우씨를 포함해 각계 시민 11명이 타종에 참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교육감, 서울경찰청장, 종로구청장 등도 예년과 같이 빠짐없이 참석한다.

보신각 특설무대에서 타종 전후 축하공연, 시장 신년인사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미스트롯’ 출연자 조정민, 걸 그룹 HINAPA, 록그룹 노브레인, 팜페라 그룹 파라다이스 등이 무대를 선보인다. 시는 이날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 막차를 연장운행한다. 지하철은 종착역 기준 오전 2시까지 평소보다 1시간 더 운행한다. 버스는 보신각 주변을 경유하는 42개 노선 막차가 보신각 근처 정류소에서 차고지 방향으로 새벽 2시 전후에 출발한다. 이날 8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신각 주변과 외곽에 소방 펌프차·구급차 25대와 소방공무원 248명을 배치해 안전을 쟁긴다.

## 다리 잘린 응급환자 수술 못받고 사망

### 유족 “적절한 치료 못 받아”...병원 “수술 못할 상황서 최선 다해”

전북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병원과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오후 8시15분께 B씨(30)가 해당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당시 B씨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 절단된 상태였다. 왼쪽다리 역시 심하게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B씨에 도착했을 당시 B씨의 혈압은 정상이었다. 고통을 호소

하긴 했지만 의식은 뚜렷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설명이었다.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의료진은 도착 후 25분이 지난 8시38분부터 수술을 실시했으며 이후 CT를 촬영했다. 그런데 오후 9시30분께 혈압이 떨어졌다. 상황이 긴급해 지자 의료진은 4차례에 걸쳐 심폐소생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혈압이 계속 떨어지자 보호자들과 협의, 11시35분께 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 도착 당시 A씨는 의식이 없었다. 유족인 B씨의 친형인 C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어도, 아니 이송만 빨리 됐어도 동생을 살 수 있

었다. A병원 의사들을 보면서 ‘이게 의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도착했을 당시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한쪽다리가 절단된 상태였으며 나머지 한 다리도 심하게 골절된 상태였다”면서 “또 사고로 B씨가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고 이로 인해 검사도중에 소크가 와 수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상태가 위급해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으며 이송 결정은 환자 가족들이 연고자가 있는 광주로 옮겨 달라고 했다”면서 “이에 의료진은 이송 중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가족들이 계속 이송을 요청해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7인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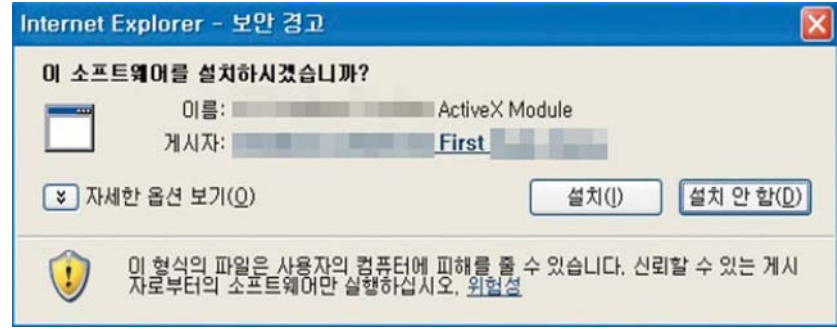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p><b>긴급</b></p> <p>112 (112계급) 122(경찰) 1588(1588) 1588-3650(1588-3650) 1588-7500(1588-7500)</p> <p>119 (119계급) 121(소방) 1388(1388) 1577-0199(1577-0199)</p> <p>1399(1399) 1399(1399) 112(112) 1366(1366) 118(118)</p>	<p><b>비긴급</b></p> <p>▶ (112) 범죄 관련 4개 번호 112, 1301, 182, 1399</p> <p>▶ (119) 재난 관련 8개 번호 119, 121, 1388-3650, 121, 123, 128, 1544-4550, 1588-7500</p> <p>▶ (110) 출동이 필요 없는 9개 번호</p>
---	--

### 긴급신고전화 112·119로 통합 3년 출동지령 소요시간 절반으로 줄었다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분석결과 7분46초→4분 1초로 ↓

긴급상황 발생시 '112'나 '119' 중 어느 곳으로 전화해도 동시에 신고가 접수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시행 3년 만에 출동 지령까지 소요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3년을 맞아 긴급신고 후 출동지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제도 시행 전인 2016년 466초(7분46초)에서 2019년 현재 241초(4분01초)로 절반가량인 225초(3분45초)를 단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신고 접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무려 21개에 달하던 신고전화 종류를 범죄 112, 재난 119, 민원 110 등 3개로 통합했다. 이는 복잡한 긴급신고 번호를 통합해 신고 내용, 사고 위치, 신고자 전화번호 등을 관계기관에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공동대응이 빨라지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또 신속한 사고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로 들어온 민원전화를 110(국민권익위원회콜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해 현재까지 54만여 건 이상의 비긴급성 신고전화를 이관했다. 특히 해경의 경우 122(해양사고) 신고번호를 119로 통합하면서 오인신고나 장난전화도 통합된 44만 2373건에서 통합 후 4692건으로 98.9%나 감소해 해상구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 공공기관 '액티브X', 내년까지 모두 없앤다

그 동안 국민들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내년 말까지 모두 제거될 전망이다. '플러그인'은 인터넷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못하는 본인확인, 전자서명,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조회·출력 등의 부가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 실행파일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2728개의 공공 웹사이트 가운데 70.8%인 1931개를 올해 말까지, 나머지 797개

(29.2%)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내년 말까지 없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플러그인 제거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국민들이 편리한 온라인 환경 구현'을 위한 것으로, 범부처 협업체를 통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실제로 연 3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주요 22개 웹사이트는 지난 8월부터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민원서류 발급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됐다.